사진기자의 딴짓

허, 참 그놈 호강하네

설마 누렁이가 길거리에서 주운 고물은 아닐테고. 허 참, 그놈 주인 잘 만나 호강하네.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에서 고물 수집을 하는 조연년(47)씨의 리어카에 올라탄 개를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사랑 꼴통이'라고 이름도 거창합니다.

어디 아파 태우고 병원에라도 가는가 했더니 늘 이렇게 모시고 다닌다네요. 네 발과 몸뚱이 하나로 얼마나 충성을 다했으면 이같은 호사를 누리는 걸까요. 이런걸 두고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루 종일 수집한 폐지나 고물을 팔아봐야 고작 8천원을 벌기 힘든 주인의 시름은 아는지 모르는지, 흔들리는 리어카 위에 앉아 있는 '내사랑 꼴통이'의 모습이 낙낙해 보입니다.

"너무 호강시키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조씨는 "그런 소리 말라"고 손사래를 치더군요.

비록 최저생활비도 못되는 벌이지만 굶지 않고 있으며 꼴통이 덕분에 늘 행복하다네요.

주인의 이런 정도 사랑이라면 이 누렁이, 올 여름 복날에도 주인과 헤어질 일 없겠습니다. /나명주기자 mjna@

뉴스퀴즈 57·58회 조영숙씨 1등

광주일보가 실시한 57·58회 뉴스퀴즈 추첨 결과, 조영숙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조씨는 9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57·58회 뉴스 퀴즈에는 엽서와 편지로 302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으며, 공정한 추첨을 위해 광주동부경찰서 김재남 경사가 입회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조영숙·광주시 서구 풍암동

2등 ▲강재희·여수시 문수동

뉴스퀴즈

59. 최근 한국은 이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타결로 한국은 중국·일본·아세안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이 곳 시장에서 한국상품 점유율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으며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 나라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쇠고기를 비롯한 우리 농업부문에서의 큰 타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FTA를 타결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① 미국 ② 멕시코 ③ 캐나다 ④ 이스라엘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오늘의 유머

■진짜 변강쇠

세명의 변강쇠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한 변강쇠가 먼저 힘자랑을 했다

"어젯밤에는 네번을 했어. 그랬더니 아침 밥상이 달라지데?"

"허허 이거 나 원 참"

그러자 두번째 변강쇠가 말했다

"아, 나는 여섯번을 뛰었더니 아침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밥상을 차리더군"

두명이 말하는 동안 가만히 있던 한명이 슬그머니 말했다.

"나는 겨우 한번만 했어"

"겨우?"

나머지 둘은 비웃으면서 아침에 어땠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변강쇠 왈 "제발 아침식사 준비 좀 하게 해 달라더군"

■여자가 변하는 3단계

반찬투정

애 하나 : 맛 없어? 낼 기다려봐. 맛난 것 만들어 둘께.

애 둘 : 이만하면 괜찮은데, 왜 그래? 애들도 아니고.

애 셋 : (투정 부린 반찬을 확 걷어가며) 배 불렀군!

잦은 사랑

애 하나 : 오늘 또 해? 당신 건강이 걱정돼~에.

애 둘 : 이런데 힘 그만쓰고 돈 버는데나 힘 써!

애 셋 : (발길로 걷어차며) 너, 짐승이니?

감기걸린 남편을 대하는 태도

애 하나 :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식구가 안심하죠, 약 드세요.

애 둘 : 밤새 술 마시고, 줄 담배 피는데 안 아픈게 용한거지.

애 셋 : (훌쩍이는 소리만 들려도) 애들한테 옮기면 죽을 줄 알어~!

TV 채널 선점권

애 하나 : 당신 보고싶은 것 봐. 난 얘기 재울께.

애 둘 : 남자가 어찌 TV에 목숨 걸어? 쪼잔하게시리.

애 셋 : (무심결에 아내가 보던 채널 돌려놓으면, 두 말 없다) 셋 센다.

■너 나 알지?

임금님이 개에게 도리도리를 시키는 사람에게는 상금을 주겠다고 명하였다. 그러나 모두 허사였다.

마지막 한사람이 남아있었다. 임금이 그에게 물었다.

"자네는 이 개를 도리도리하게 할 자신이 있는가?"

"물론이옵니다. 폐하" "자, 시작해보게"

그러자 벽돌을 꺼내어 힘껏 개에게 날렸다. 개는 깨갱거리면서 임금님 뒤로 숨었다. 그 사람이 개에게 물었다.

"또 맞을래?" '도리도리'

드디어 도리도리를 한 것이다.

몇일 뒤 그 개는 도리도리만 할줄알지 끄덕 끄덕은 전혀 하지 못하는 불구자가 되었다.

임금은 다시 명하였다.

이 개에게 끄덕끄덕을 시킨 자에게는 더 후한 상금을 주겠다고 명 내리자마자 그 남자가 왔다.

그러고 이 한마디를 내뱉고 상금을 챙겨갔다.

"너 나 알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0일(음 2월 23일 甲戌)

子 36년생 온 식솔이 평안하다. 48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의 방책이다. 60년생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이해가 된다. 72년생 너무 큰 기대는 하지마라 작은 것에 기쁨이 있다. 84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차근차근 행하면 발전이 있다. 행운의 숫자 : 12, 36

丑 37년생 계속 전진하면 좋은 길이 보인다. 49년생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신사를 계획하면 즐거움이 있으리라. 61년생 인생은 연출이다 멋지게 보내라. 73년생 오늘은 안전운전을 해야 하리로다. 85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라 일석이조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08, 36

寅 38년생 가정불화가 시작되니 양보하면 피할 수는 있으리라. 50년생 구설수가 타인으로부터 생길 수도 있다. 62년생 걱정을 버려라 걱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74년생 정도를 걸으면 마음은 봄날이다. 행운의 숫자 : 09, 40

卯 39년생 나쁜 일이 쫒아 다닌다. 주의해야 할 것이다. 51년생 집 안과 밖에서 좋은 소식이 들린다. 63년생 사소한 일이 오히려 중요하다. 75년생 돈이 생기지만 바로 쓸 구멍이 생기니 생각을 잘하라. 행운의 숫자 : 06, 29

辰 40년생 알뜰살뜰 지내야 재물이 쌓인다. 52년생 꿈을 크게 갖고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64년생 귀인은 가까운 곳에 있으니 꼭 찾으라. 76년생 인덕을 베풀면 자신에게 돌아온다. 행운의 숫자 : 19, 25

巳 41년생 수하인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53년생 어려움은 잠시 일 뿐이니 인내하며 기다리라. 65년생 친구는 언제나 반가우니 친구를 찾아보라. 77년생 걱정은 걱정을 하는 자만 갖는다. 마음 편히 일하라. 행운의 숫자 : 11, 40

午 42년생 활기찬 하루이니 용기 백배 하리라. 54년생 가까운 이웃과 좋은 하루를 보내면 길사가 생길 수다. 66년생 마음은 갈팡질팡, 심신의 안정을 찾으라. 78년생 조상의 묘를 찾아보고 선친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라. 행운의 숫자 : 07, 30

未 43년생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다. 55년생 마음을 비우고 지내면 채워지리라. 67년생 좋은 옷 입고 즐거운 날이다. 79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라. 어려운 일이 쉽게도 풀릴 수다. 행운의 숫자 : 21,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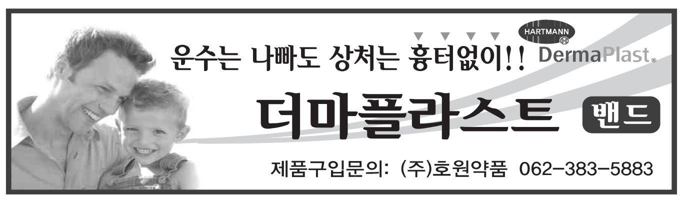
申 44년생 듣기 좋은 말은 독이 되니 주의하여 들으라. 56년생 새 문서로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68년생 멀리 간 친구에게서 소식이 온다. 80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서두르면 실패한다. 행운의 숫자 : 14,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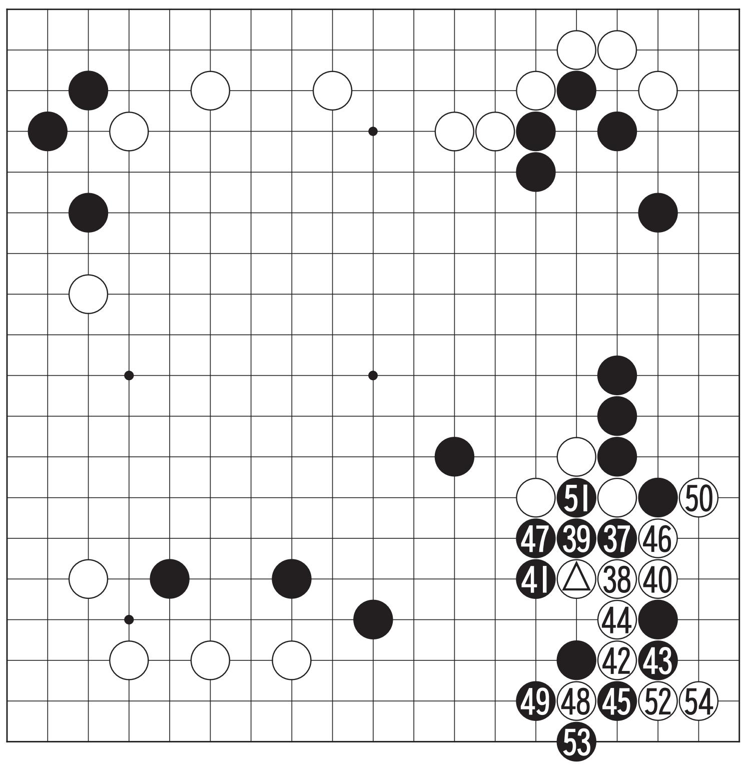
酉 45년생 식복이 넘치나 조심은 해야 할 것이다. 57년생 지금은 고통이지만 내일은 행복하다. 69년생 다투면 손재요 양보하면 득이 된다. 81년생 지난 과거가 문제를 가져 올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17, 34

戌 46년생 편안한 하루이나 큰 득은 없다. 58년생 오늘 결정을 하지 말고 내일로 미루라. 손재가 보인다. 70년생 오늘은 평화로운 하루지만 내일을 생각하라. 82년생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마음이 현란하다. 행운의 숫자 : 03, 33

亥 47년생 자녀의 주변도 살펴봐야, 자녀가 어려울 수도 있다. 59년생 문단속을 잘하라 도둑이 들 수도 있다. 71년생 오래 동안 막힌 일이 저절로 해결된다. 83년생 초고후안 처음은 고생이었으나 나중은 편안하다. 행운의 숫자 : 05, 38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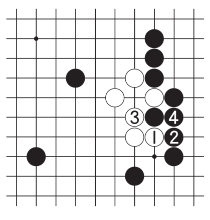




제2기 원익배 십단전 결승 2국

한끗이 부른 풍운 4보(37~54)

白 백홍석 5단 黑 안조영 9단



〈참고도〉

백 △는 돌이 무거워지는 것을 피하여 가볍게 처리하려는 수법인데 안조영은 즉각 흑 37로 단수쳐 모양을 무너뜨린다.

전투는 기세와 기세의 다툼이다. 한쪽이 타협을 들고 나온다면 어찌 전투가 벌어지겠는가. 그러나 바둑이란 필연적으로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므로 지지않기 위해서는 영역다툼이 필연적이며 전투는 바둑인의 숙명이다.

백 38 역시 기세이며 절대. 단순히 39에 막는 것은 평화스러우나 '참고도'처럼 백 1로 밀고 들어간 것하고는 한끗의 차이가 있다.이 한끗 때문에 대마가 죽고 사는 것이 프로의 세계요 정서다.

바로 이 한끗 때문에 이곳에서도 천지가 뒤집히는 대풍운이 일기 시작한다. 흑 39가 밀리지 않으려는 최강의 저항이며 이 때문에 백 40으로 뚫려 버렸다. 이렇게 된 이상 백 54까지는 필여적인 바꿔치기다. 한끗이 부른 변화치고는 너무나 엄청난 결과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R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이창호, 전자랜드배 16강 진출

이창호 9단이 최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32강전에서 양재호 9단을 203수 끝에 흑 불계로 제압, 16강에 진출했다.

이 9단은 하변과 우변 백돌을 공략하면서 틈틈이 집을 벌어들이는 실리작전으로 양 9단의 항서를 받아냈다.

이어 열린 대국에서는 강동윤 5단이 백호부 우승자인 백성호 9단을 159수만에 흑 불계로 따돌리고 16강에 합류했다.

이창호는 16강전에서 박정상-이영구 대국의 승자와 격돌하며 강동윤은 유재성 3단과 대국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879>

That goes without saying

당연하지

A:That's a nice car.
B:Thanks. I like it, too.
A:I bet it goes fast.
B:**That goes without saying.**

A:와, 그 차 좋은데.
B:고마워. 나도 마음에 들어.
A:스피드가 잘 나오지.
B:**당연하지.**

I bet~ : 틀림없이 ~하는 거지!
That goes without saying.
= Need you ask?(당연하지 않니?)
= You be the judge(보면 알잖아)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879>

今度、また集(あつ)まろうよ

다음에 또 모이자

A:今日(きょう)、樂(たの)しかったね。
B:**今度**(こんど) また**集**(あつ)まろうよ。
A:いいね、一ヶ月(いっかげつ)に一回(いっかい)はどう?
B:そうしよう。

A:오늘 즐거웠어.
B:**다음에 또 모이자.**
A:좋지, 한달에 한번씩 어때?
B:그렇게 하자.

集(あつ)まろう: 모이자
しよう:~하자 あそぼう(놀자)
たべよう(먹자)
みよう(보자) :~よう、~う :~하자는 청유를 나타냄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70>

兵马俑是陪葬品

병마용은 부장품이야

A:秦始皇是中国第一个皇帝。
Qínshǐhuángshìzhōngguódìyígehuángdì
친스후앙 스 쭝구어 띠 이거 후앙띠.
B:秦始皇陵就是秦始皇的陵墓，在西安。
QínshǐhuánglíngjiùshìQínshǐhuángdelíngmù,zàixī'ān
친스후앙링 찌어우스 친스후앙더 링무, 짜이 시안.
A:**兵马俑是陪葬品。**
Bīngmǎyǒngshìpéizàngpǐn
삥마용 스 페이짱핀
B:秦始皇陵兵马俑是世界奇迹。
Qínshǐhuánglíngbīngmǎyǒngshìshìjièqíjì
친스후앙링 삥마용 스 스지에 치지.

A: 진시황은 중국의 첫 번째 황제야.
B: 진시황릉은 바로 진시황의 무덤이지.
A: **병마용은 부장품이야.**
B: 진시황의 병마용은 세계기적이잖아.

皇帝 [huángdì] 황제
陵墓 [língmù] 왕릉, 제왕 또는 제후의 무덤
西安 [xī'ān] 서안
陪葬品 [péizàngpǐn] 부장품
(장사 지낼 때, 시체와 함께 묻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世界奇迹 [shìjièqíjì] 세계기적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496>

百里負米 (백리부미)

일백 백, 이수 리, 질 부, 쌀 미

백리부미(百里負米)는 백리 길에 쌀을 짊어진다 말로, 부모에게 쌀밥을 지어 드리기 위해 백 리 길도 멀다하지 않고 쌀을 져 날랐다는 자로(子路)의 효성에서 유래하였다.

공자(孔子)의 제자인 자로는 효성이 지극하였다. 하루는 자로가 스승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 하였다. "가난할 때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는 봉록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관리가 됩니다. 옛날 부모님에게 명아주잎과 콩잎처럼 나쁜 음식 밖에 대접할 것이 없어, 백 리 밖에서 직접 쌀을 져 왔습니다(百里負米).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초(楚)나라에서 관리가 되었을 때는 수레가 백 대나 되었고, 창고에는 쌀이 수만 석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수명은 마치 흰 말이 달려가는 것을 문틈으로 보는 것처럼 순간일 뿐입니다." 공자가 이 말을 듣고 "부모님에 대한 자로의 효성은, 살아계실 때는 정성을 다해 섬기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한없이 그리워하는구나 "라고 감탄하였다. (孔子家語·致思)

따라서 '백리부미'는 가난하게 살면서도 부모봉양을 잘함을 비유한다. 넉넉하지 못한 처지에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풍수지탄(風樹之嘆)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계실 때 작은 정성이나마 다해야 할 것이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